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시론적 분석*

Basic Analysis for Social Spreading of Family Archives

김명훈(Kim, Myoung-hun)**

1. 머리말
2. 가족의 개념과 가족아카이브의 필요성
 - 1) 가족의 의미와 특성
 - 2) 한국 가족의 특성과 가족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3. 각국 국립기록청의 가족아카이브 활성화 동향 분석
 - 1) 미국 NARA의 가족아카이브 관리 및 활용 서비스
 - 2) 호주 NAA의 가족아카이브 활성화 서비스
 - 3) 영국 TNA의 가족사 연구 서비스
 - 4) 캐나다 LAC의 가족사 연구 서비스
4. 가족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정립
 - 1)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적
 - 2) 가족아카이브의 기능 및 가치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733).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연계전공 강사(sjmhwldhappy@hanmail.net)

■ 투고일: 2020년 09월 2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10월 05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10월 16일

■ 기록학연구 66, 229-265,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6.229>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의 사회환경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의 국립 기록청 사례조사이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구 각국의 국립 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다. 가족아카이브가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고유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가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정립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기존의 기록학 이론과 대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 가족아카이브는 '제도'가 아닌 '문화'로, 또한 '관리'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들은 공공기록처럼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고,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법령 및 표준, 지침 등을 통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록의 관리·보존에 앞서 기록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에 우선점을 둘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가족, 가족기록, 가족아카이브, 기록, 아카이브, 가족사, 계보, 가족역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family archive as a means for the recovery of the family community and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family archive as a social culture. With the lack of research on family archives worldwide, this study analyzed family archives focusing on three areas. The first is a review on the necessity of family archives. To this end first, studies in the fields of sociology and family studie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crisis of the family community intensified in the recent social environment,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family archive using records in Korean society was suggested.

The second is case studies of National Archives of advanced countries for social expansion of family archive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 Western, family archives are closely related to family history or genealogy research, and more than half of visitors to archives are occupied by family history or genealogy researchers. This is because National Archives of Western countries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for building family archives. The third is an analysis of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family archives. This is because in order for the family archive to become a pan-social recording cul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values and roles of the family archive along with its own meaning and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ublic records.

Accordingly, the aim wa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goal of the family archive, and to explore th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family archive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theories of archiv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cusing on these three areas, the family archive needs to focus on 'culture', not 'institution', and 'utilization' rather than 'management'. Theories and methodologies of archival science have been developed with an emphasis on systematically managing and preserving a vast amount of records like public records, and based on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records management has been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

However, in order to spread the family archive socially, it must be established as a culture or lifestyle that can be practiced by all ordinary citizens in the process of daily life. Prior to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professional records, all members of the family must understand the meaning contained in the records.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use so that they can be shared.

Keywords : Family, Family Record, Family Archive, Record, Archive, Genealogy, Family History

1. 머리말

일상생활의 개인기록들은 공공기록과 같은 공식기록이 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 통치 및 행정 이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개인들의 행위 및 공공기록으로 남지 않은 수많은 민초들의 일상생활상을 전승해줄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록은 관리 및 보존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공기록처럼 체계적인 생산·등록·분류 절차 없이 파편화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인기록을 통제하고 그룹화할 수 있는 상위의 계층 설정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 사회 내의 개인들이 속해 있는 가족은 개인기록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삼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 가족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 가치관의 변모에 따른 세대 간의 대화 단절,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부부관계의 단절,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부족 등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은 미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족아카이브는 가족 구성원의 기록을 통한 공동의 기억 공유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가족공동체를 복원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가족(家族, Family)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 및 손자, 손녀 등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은 부모·자식·부부 등의 관계로 맺어져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인류의 발생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발생된 가장 오랜 집단이며 어떤 사회·시대이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특히 한국 가족은 가족주의로 대표되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심으로 응집성이 높은 집단으로(이승미 외 2012, 187),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는 유교적 가치의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사회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산업화가 진전된 현대에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이정우 외 1998, 68-69).

가족아카이브는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들을 공유하는 행위 내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부모의 결혼과정 및 가정을 유지하면서 생성된 각종 기록, 자녀의 성장 및 학업과정 중에서 생성된 다양한 기록은 물론, 가족의 기념 및 각종 행사·활동과정에서 축적된 기록 등을 관리·보존해 활용시키는 한 사회 내의 가장 기초적인 기록 관리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위기 및 해체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아카이브는 공동의 기억 공유를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가족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 기록관리 실무현장에서는 ‘가족아카이브’(Family Archives)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NARA 및 호주 NAA를 비롯한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도 가족아카이브 구축의 실제 사례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록학계 및 실무현장에서는 아직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기록관리 문화가 아직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지 않은 연유도 있겠지만, 주로 공공

기록 중심으로 학계 및 실무현장의 논의가 집중되는 원인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우선 서구 기록관리학계에서 가족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소수에 불과하다. 매일매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생성되는 공공기록 내지 조직기록들을 위한 관리방법론에 편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볼 때, 가족기록의 관리 및 가족아카이브 구축은 전문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족아카이브가 무엇인지, 가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Woodham, King, Gloyn, Crewed, Blair 2017, 203). 대신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타 학문 분야에서 몇 편 수행되었는데, 주로 특정 가족 내지 가문 기록을 대상으로 해당 기록의 가치 내지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Rosenberg 2011; Rokahr 2003; Lundin 2006; Kambar 2013).

가족아카이브가 지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가족아카이브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타 학문분야의 유사 연구로는 이은령의 연구성과가 유일한데, 「가족콘텐츠 스토리텔링 저작시스템」이란 논문에서 가족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단절되어가는 세대 간의 전통과 문화역사,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가족콘텐츠 스토리텔링 저작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가족의 역사, 개인의 인물사 등 선형적인 서사 장르의 이야기 작성 과정을 기획에서 저작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은령 2013). 이처럼 기록학 분야에서 가족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원인은 공공기록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유를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기록학계에서 가족아카이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이 최

근 들어 서서히 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연구동향은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들로, 그동안 공공기록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곽건홍 2011; 심성보 2011; 이영남 2020; 임진희 2011). 또 하나의 연구동향은 개인기록 관리에 대한 연구로, 크게 개인기록 관리에 대한 사례연구(오의경 2017; 장주영 2016; 김재호 2010; 김혜림 2010; 이은화 2009)와 개인기록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김진용 2013; 최유리, 임진희 2015; 오명진 2017) 두 방면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최근 사회환경에서의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며, 두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각국 국립기록청의 사례 조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가족의 의미 및 중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의 필요성을 고찰하였으며, 3장에서는 해외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족아카이브를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 동향 및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어 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연구로,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정립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제시하였다.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족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향후 가족아카이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2. 가족의 개념과 가족아카이브의 필요성

1) 가족의 의미와 특성

가족은 부모·자식·부부 등의 관계로 맺어져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인류의 발생과 함께 생성된 가장 오랜 집단이며, 어떤 사회·시대이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라 할 수 있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온라인판)). 이러한 가족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보편적인 사회집단으로,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선택의 여지없이 가족에 속하게 된다. 가족은 라틴어의 'Familia'에 어원을 두는데, 이 의미는 본래 노예나 하인을 뜻하는 Famulus와 유사한 것으로 가족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이정우 외 1998, 25-26). 즉 집에 속하는 인간 또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생활하는 장소로서의 집과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족은 개인의 기본 인성의 형성의 모체인 동시에 사회 공통의 행동 특징, 문화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의 기본 집단이 되며, 사회를 존속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인간의 가족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인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다. 형태상으로 가족은 모든 인간사회에 공통된 현상으로, 지역 및 시대에 따라 각양각색의 구조적 형태를 띠고 있다(글로벌 세계대백과(온라인판)). 가족은 일반적으로 혈연·결혼·입양 등에 의해 묶여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되는데, 단독 가계를 구성하여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 등 각자의 역할로써 상호작용을 한다. 가족은 구성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사회화하고 아프거나 불구인 가족원을 돌볼 뿐 아니라, 출산을 제도화하고

성관계 규제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에게 음식, 잠자리, 의복,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질서와 안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단위 조직과 친족관계의 구조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 세계에 걸쳐 가족과 친족은 사회조직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온라인판)).

가족을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볼 때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첫째 가족은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으로,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친밀하며, 그 관계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 또한 구성원들은 하나의 공통된 전체 속에 융합되어 '우리 의식'(We-feeling)으로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공동 사회집단(Gemeinschaft)으로서의 특성이다. 가족은 구성원 상호 간의 애정과 이해로 결합되어 외부적인 장애에 의해 분열되지 않는 본질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감정적 기초로 성립되는 관계이다. 셋째 폐쇄집단(Closed Group)으로서의 속성이다. 개방집단은 집단의 소속성이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그 집단 성원의 자격을 획득, 포기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족 이외의 대부분의 집단은 개방집단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반면 폐쇄집단이란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의 획득 및 포기가 용이하지 않은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특정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고, 혈연으로 특정 가족에 태어난 이상 그 가족관계를 자유롭게 포기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도덕, 법규 등 외부적 규범 및 문화의 규제를 엄격히 받는 집단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는 자유스럽고 솔직하며 형식에 매이지도 않으며, 인간적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형식적 관계를 지닌다(이정우 외 1998, 29-30).

이러한 가족이 지닌 특성을 기반으로 가족은 우선적으로 애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은 애정을 기초로 남녀의 결혼 및 출산으로 형성되며, 애정

과 헌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집단이다. 전통적 가족에서는 부부관계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애정기능이 그다지 중요치 않았으나, 현대 가족의 부부관계는 동료관계로 변화하면서 우애적 기능이 강조되어 정서적 안정을 비롯한 애정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일으켜 애정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이다(이정우 외 1998, 35). 다음으로 가족은 자녀 양육과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면 일정 시기까지 부모의 양육과 부양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돕고 올바른 습성을 가르치면서 그 사회에서 바람직스럽게 여기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이러한 부모의 정신적 물질적 부양과 훈육을 통해 세대 간의 문화가 계승되게 된다(이정우 외 1998, 35-36).

교육 가능 및 휴식 기능 역시 가족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능이 전문화된 기관으로 이양되어 이루어지지만, 각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과정 속에서 비형식적인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가정교육은 인간의 심층 깊숙이 내면화되고 지속력이 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이정우 외 1998, 36-37). 그리고 가족은 사회생활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하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히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빈번한 지역적 이동, 복잡한 업무 및 대인관계, 치열한 생존경쟁 등으로 지친 심신을 가정에 해소해주는 휴식 기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이정우 외 1998, 38).

2) 한국 가족의 특성과 가족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최근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성장과 이에 따른 물질주의의 만연, 그리고 개인주의의 심화 등 다양한 연유로 가족공동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치열

한 생존경쟁 및 사회활동으로 인한 세대 간의 대면 부족으로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으며, 부부 사이의 이혼율 증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 청소년과 노인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종래와 같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공동체의 소속감 및 정서적 기능이 줄어들고 가족 결속력 역시 예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강력한 가족 유대감을 지속해왔다. 한국 가족의 특성은 가족주의로 표현되는데, 가족주의 가치는 유교적 가치의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사회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왔으며, 서구화 및 산업화가 진전된 현대에도 강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이정우 외 1998, 68-69). 한국 가족의 특성은 '집' 위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집은 과거의 시조에서 조상을 거쳐 미래의 자손에 연결된다고 인식되는. 부계의 초시간적인 관념적 제도라 할 수 있다(최재석 2009, 211, 215).

이러한 의식 하에 결혼을 기초로 성립되는 가족은 그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도 항상 '집의 존속'이라는 조건 위에서 관계되어 제도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가족은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될 집의 교량적 역할과 임무를 담당해왔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에서 보듯이, 치국은 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상은 집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치국의 원리가 제가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한국 가족은 가족주의로 대표되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심으로 응집성이 높은 가족을 유지해왔으며,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족은 삶의 근원이자 행복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왔다(이승미 외 2012, 184, 187). 이와 아울러 각종 제도 및 사상, 문화의 서구적인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가족 전체를 중심에 두는 가족주의를 철저히 고수한 것이 한국 가족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최재석 2009, 217).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은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저

출산 세계 1위, 이혼율 OECD국가 중 2위, 재혼률 상승, 맞벌이 가구 증가, 한부모 가구 증가, 기러기 아빠의 출현 등 가족의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이재경 2004, 230). 과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랑, 희생, 믿음을 기초로 한 운명공동체로 여기면서 유지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된 삶을 살면서 가족관계의 의미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실직 상태나 비정규직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경우는 물론 정규직이나 전문직 등 안정된 직업을 갖는 베이비붐 세대나 에코 세대들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언제든지 낙오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밝지 않는 불안한 부모들과 자녀들은 미래를 걱정하여 과도한 사교육비를 감내하고 끝없는 스펙 쌓기에 몰두한다. 이들은 학력, 학점, 조건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요소들을 모으는데 집중한다(이윤석 2014, 17).

현재 한국 가족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세계 최저의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다문화가족의 증가, 다양한 가족의 확대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만혼과 이혼의 증가 등이 가족 관련 현상의 대표적 징표들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 역시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변화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승미 외 2012, 184).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가족아카이브는 위기에 직면한 가족공동체를 복원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가족의 삶이 반영된 기록은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Rosenberg 2011, 91). 가족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념일, 여행, 행사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이 창출되며, 아울러 SNS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도 구성원간의 대화 및 소통과 관련된 기록이 생성된다. 기록은 조직 및 개인의 활동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성·축적되어 그 활동에 대한 증거 및 기억을 제공하는 대상이며, 아카이브는 이러한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시켜 공동의 기억 공유를 통한 사회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면, 가족아카이브는 가족 구성원들의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추억을 나눔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및 친밀감을 복원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

3. 각국 국립기록청의 가족아카이브 활성화 동향 분석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사(Family History) 내지 계보(Genealogy) 연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북미 및 유럽 등 서구의 일반 가정에서 가족의 기원 및 가족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역사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Cox 1984, 89).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을 근간으로 하는데, 정보검색 패턴 등 정보활용 방식은 기록관리학의 방식과 유사하다(Duff, Johnson 2003). 즉 이들 연구자는 소장된 기록을 검색하고 그 안에 수록된 정보를 분석해 가족의 기원 내지 역사와 관련된 의미를 도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국적으로 가족아카이브를 창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록관리 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Yakel, Torres 2007, 110-111).

20세기 초반까지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은 기록관 영역에서 중시되지 못하였다. 인적 물적 자원 등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기록보존소의 상황에서 잦은 열람요청 및 기록 훼손 등의 이유로 기록보존소의 업무를 과중시켰기 때문이다(Tucker 2006, 133-134). 하지만 1977년 미국 TV 드라마인 ‘뿌리’(Roots) 방영 이후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록관리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Yakel, Torres 2007, 93-94). 아울러 20세기 후반들어 북미 및 유럽지역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50%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중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Tucker 2006, 130).

1) 미국 NARA의 가족아카이브 관리 및 활용 서비스

미국 NARA에서는 사회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가족 아카이브의 관리 및 보존방법을 제시해준다. 공공기록처럼 가족기록은 양이 많지 않은 관계상 각 가정 내에서 일반 시민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쉬운 정리 및 보존 방식 소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가족아카이브에 관한 메인 화면으로, 예비 정리, 보관 및 전시, 디지털링, 손상복구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¹⁾

〈그림 1〉 미국 NARA의 가족아카이브 메인 화면



우선 가족기록의 예비 정리는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 실제 기록을 예비적으로 정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주는데, 여기서는 가족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청결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권장하며, 또한 실제 기록물 및 사진을 다룰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기록의 보관 항목에서는 종이기록 및 사진자료

1) <https://www.archives.gov/preservation/family-archives>

들을 보관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및 실제 보관방식을 제시해 준다. 전문적인 보존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섭씨 23.6도 이하의 낮은 온도 및 상대습도 65% 이하의 습도에서 가족기록을 보관하도록 권장하는데, 온도가 낮으면 화학약품의 부식 속도가 느려지고 아울러 가정에서 생기기 쉬운 곰팡이 및 기타 해충들로부터 기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테이트 네거티브(Acetate Negatives), 컬러 네거티브(Color Negatives), 인화사진 및 슬라이드 필름 등은 변색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시 항목에서는 가정 내의 책장이나 거실의 전시장 등에 가족기록을 전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령 가시광선이나 형광등으로부터 발산되는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강도가 낮은 조명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경우 조명을 끄고 창문에 음영을 두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기록이 노출되는 빛의 시간과 강도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족기록의 디지털이징 항목에서는 활용을 위해 스캔해서 사본을 생성할 경우 가정 내 일반 스캐너를 사용한 디지털이징 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스캔 시 종이기록 내지 사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스캔된 디지털 파일에 파일명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안내해주고 있다. 단 디지털이징한 파일은 전자기록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보존이 어려운 관계상 원본을 반드시 병행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록의 손상복구 항목에서는 종이기록이나 사진이 심하게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를 실제 사진과 함께 해당 사례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보존복원 전문업체 목록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NARA에서는 가족아카이브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가족역사 연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서구 각국에서는 사회의 다원화 경향과 맞물린 가족위기 및 가족해체의 증가 상황에서, 가족기록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및 소속감 증진을 목적으로

기록을 활용해 가족의 역사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Tucker 2006). 이에 미국 NARA에서는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록 유형 및 목록, 각 기록별 주요 내용 및 가족역사 연구에 유용한 정보 형태, 이용방법, 소장처, 온라인 검색방법 등을 ‘Research Your Ancestry’란 코너²⁾를 개설하여 매우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워크숍 및 시민강좌도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역사 연구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 NARA에서는 가족역사 연구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유형을 제시해준다. 우선 인구조사 기록(Census Records)은 미국에서 1790년 최초로 실시된 이래 10년마다 생성되는 기록으로, 가족 조상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이민년도, 결혼여부, 직업, 세대구성원 등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는 가족역사 연구를 위해 조상과 관련된 다른 기록들을 검색하는데 단서로 활용되며, 민간기업들과 협력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³⁾ 군복무 기록(Military Service Records) 역시 조상의 계급, 소속부대, 소집일자, 개인 의무정보 및 군사정보를 제공해주는데, NARA에서는 미국 독립전쟁부터 1912년까지 연방 군복무 기록과 함께 National Military Personnel Records Center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복무 기록의 상세목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군복무 기록과 관련하여 재향군인, 미망인 및 기타 상속인을 위한 연금신청 기록도 서비스하는데, 이들 기록에는 결혼증명서, 출생기록, 사망증명서, 가족서신, 퇴원서류 등 가족역사 연구에 유용한 정보들이 집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⁴⁾

2) <https://www.archives.gov/research/genealogy>

3) <https://www.archives.gov/research/genealogy/census>

4) <https://www.archives.gov/research/military>

〈그림 2〉 미국 NARA의 가족역사 연구를 위한 기록 사본제공 서비스 화면



선박승선기록이라고도 지칭되는 이민기록(Immigrant Records)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5천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선박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조상의 국적, 출생지, 선박 이름 및 미국 입국날짜, 나이, 신장, 눈 및 머리 색깔, 직업, 최종 거주지, 미국에 기입국한 친인척의 이름과 주소, 입국 당시 소지한 화폐의 양 등 가족역사 연구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⁵⁾ 마지막으로 귀화기록(Naturalization Records)은 이들 이민자의 미국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기록으로 조상의 생년월일 및 출신지역, 직업, 이민년도, 결혼 여부 및 배우자 정보, 증인의 이름 및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⁶⁾

이러한 주요 기록 외에도 NARA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기록, 토지기록, 사회보장 기록, 납세기록, 재판기록 등 가족역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의 목록과 함께 이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제시해주며, 위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 사본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역사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NARA에서는

5) <https://www.archives.gov/research/immigration>

6) <https://www.archives.gov/research/immigration/naturalization>

일반 시민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가족역사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검색도구 및 관련 사이트, 가족역사 연구를 위한 각종 가이드 및 참고자료, 워크숍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2) 호주 NAA의 가족아카이브 활성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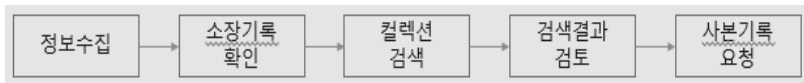
호주 NAA에서는 가족아카이브와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에 주안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다. 우선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의 탄생, 즉 부모의 탄생, 만남, 결혼, 자녀의 탄생 및 성장, 학교, 직장, 사회생활 등과 관련하여 가족구성원에게 기념되거나 의미를 지닌 일체의 기록으로 구성된다고 전제한다. 가족아카이브는 공공기록처럼 방대한 양을 지니지도 체계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적용되지도 않으며, 가족에게 의미 있는 기록들을 스스로 선정하여 가정 내 보관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가족아카이브의 제일 큰 문제는 기록의 훼손인 관계상, NAA에서는 보관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아카이브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NAA에서는 보관, 피해예방, 교육이라는 세 측면에서 가족아카이브와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준다. 먼저 보관과 관련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유하는 기록매체인 종이문서, 사진 및 필름, CD 및 DVD, 기념물품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각 매체별로 보관방식 및 보관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시해준다.⁷⁾ 또한 습기나 화재, 홍수 등으로 기록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기록 손상시 가정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구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으며, 더불어 가족 문서 및 사진 관리방법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정보와 함께 홈페이지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각종 사이트 및 자료를 링크로 제시하여 일반 가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7) <https://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storing-and-preserving-information/preserving-information>

한편 NAA는 기관의 사명 중 하나로 호주 국민들을 위한 가족역사 연구 지원으로 인식하고, 홈페이지상의 메인 화면에 ‘Research Your Family History’ 항목을 구축하여 가족역사 연구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시해준다.⁸⁾ 우선적으로 NAA는 일반 시민들이 가족역사 연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록 범주를 호주로의 이주기록(선박승선기록, 이주민입시수용소 기록, 이주민 등록기록), 호주 시민권의 획득기록, 해외거주 친인척 초청기록, 군 복무 기록, 유권자 등록기록, 특허 또는 상표 등록기록, 공무원 인사기록, 원주민 기록, 인구조사 기록 등으로 제시하고, 각 기록유형별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해준다.

〈그림 3〉 가족역사 연구 절차



다음으로 NAA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참조할 수 있는 가족역사 연구를 위한 소장기록 이용 절차를 위의 그림과 같이 제시해준다.⁹⁾ 우선 정보수집 절차를 통해 연구를 원하는 조상의 성명, 출생지 및 당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활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 소장기록 확인 절차를 통해 NAA에 소장되어있는 기록의 범주를 큰 틀에서 확인한 후 컬렉션 유형, 소장기록 형태 및 종류 등 실제 찾고자 하는 기록의 검색 가능성을 파악하게 된다. 소장기록 확인이 완료되면, 컬렉션 검색 절차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RecordSearch’를 통해 실제 해당 기록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8) <https://www.naa.gov.au/explore-collection/search-people/researching-your-family>

9) <https://www.naa.gov.au/help-your-research/getting-started>

〈그림 4〉 호주 NAA의 RecordSearch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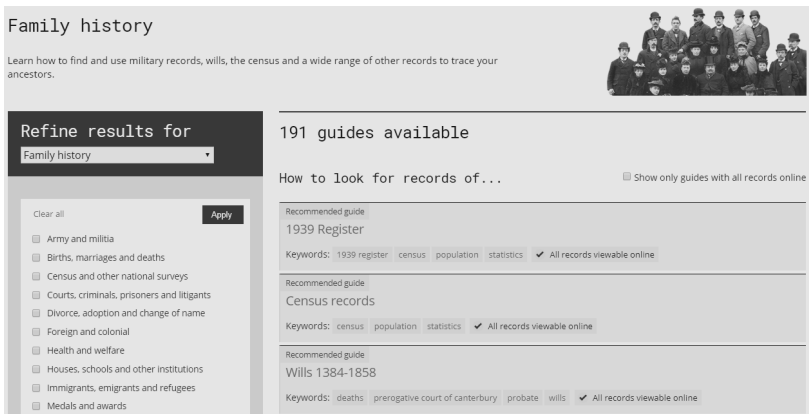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가족 관련 기록을 검색하는 'RecordSearch' 중 '승선자 검색' 화면으로, 기본검색(키워드 및 연도 검색) 및 상세검색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폭넓은 검색을 위해 가족명 검색, 사진 검색(키워드 및 연도, 주제), 승선자 검색(가족명, 선박명, 도착년도, 승선항, 도착항 등)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NAA에 소장되지 않은 기록들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내지 검색사이트, 기타 관련 정보를 제시하여 가족역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록 검색이 완료된 후에는 'RecordSearch'상에 해당 기록의 열람 및 활용 가능 여부가 표시되는데, 이중 공개로 표시된 기록에 대해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으로 사본기록 요청이 가능하며, 공개가 제한된 기록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영국 TNA의 가족사 연구 서비스

영국 TNA에서는 미국 NARA 및 호주 NAA처럼 가족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을 위해 컬렉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제공해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개인기록을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¹⁰⁾ 가족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TNA 홈페이지상에 ‘Family History’란 코너를 개설하여 일반 시민들의 가족역사 연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영국 TNA의 ‘Family History’ 서비스 화면



미국 및 호주 국립기록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가족역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191개의 기록유형 목록을 제공해준다. 이민자기록, 선박승선기록, 인구조사기록, 출생기록, 결혼증명서, 군복무기록, 학교기록, 사례증명기록 등 가족역사 연구와 관련된 기록의 생산목적 및 과정, 주요 내용 등에 관한 매우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가족역사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위한 기본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가족의 조상 연구에 필요한 해당 기록유형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

10)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archives-sector/advice-and-guidance/managing-your-collection/>

고 온라인상으로 이용 가능한 기록유형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TNA에 소장되지 않은 기록들은 활용 가능한 타기관 사이트로 링크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검색된 기록에 대한 활용방법과 함께, 온라인 열람, 기관방문 열람, 기록복사 가능 유무 등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해주고 있다.¹¹⁾

4) 캐나다 LAC의 가족사 연구 서비스

캐나다 LAC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기록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가족역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오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LA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족역사 연구 메인 화면으로, 일반 시민을 위한 기록 서비스 항목 중 하나로 설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적인 계보학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도 기록을 통해 가족역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위한 기본 절차 및 방법, 관련기록 소장처 및 검색방법, 기록 사본의 획득방식 등에 대해 매우 용이하면서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 각 주 기록보존소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족역사 연구를 위한 기록 유형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이트 주소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기록 검색을 가능하게 해준다.¹²⁾

특히 LAC에서는 ‘Ancestors Search’란 항목을 개설하여 가족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다. 출생기록, 결혼기록, 부동산 기록, 인구조사기록, 이민자기록, 시민권 관련 기록, 군복무기록 등 가족의 조상에 관한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되는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생산배경, 주요 내용, 소장기록 현황 및 범위, 기록군 내 관련정보 검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해주고 있으며, 각 기록별로 조상의 성명, 생년월일,

1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help-with-your-research/research-guides/?research-category=family-history>

12) <http://www.bac-lac.gc.ca/eng/discover/genealogy/Pages/introduction.aspx>

〈그림 6〉 캐나다 LAC의 가족역사 연구 서비스 메인화면



세례년도, 결혼년도, 사망년도 등을 통해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조상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파악된 기록 및 관련 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획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주고 있으며, LAC 소장기록 외에 가족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타기관 및 타사이트도 링크로 연결해주고 있다.¹³⁾

이상과 같이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활성화 및 가족사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가족 아카이브의 관리 및 보존방법을 제시해주거나 일반 시민들을 위해 컬렉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제공하는 등, 기록관리 비전문가인 일반 가족 구성원 누구나 손쉽게 기록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해주고 있다. 아울러 각국 국립기록청에서는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록 유형 및 목록, 각 기록별 주요 내용 및 가족사 연구에 유용한 정보 형태, 이용방법, 소장처, 온라인 검색방법 등을 매우 상세히 제시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워크숍

13) <http://www.bac-lac.gc.ca/eng/search/Pages/ancestors-search.aspx>

및 시민강좌도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사 연구에 일조하고 있다.

4. 가족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정립

1)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적

최근 가족의 위기 및 해체 상황에 직면하여 가족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도구 중의 하나로 가족아카이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가족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보유하게 되지만, 가족아카이브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 기록학 영역에서의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Woodham, King, Gloyn, Crewed, Blair 2017, 203).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록은 가정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산, 축적되고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에게 공유된다면, 가족아카이브는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추억을 나눔으로써 가족공동체의 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하나의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서 가족아카이브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록학 영역에서 가족아카이브는 특정 유명 인사 내지 가문에 관한 기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의미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Woodham, King, Gloyn, Crewed, Blair 2017, 206). 또한 공공기록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아카이브의 정의는 물리적 보존공간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생산목적 본래와는 다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연구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기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가족아카이브는 대량의 기록을 보존하는 물리적 보존장소로서의 개념도 또한 특정 보존가치를 지

닌 영구보존 대상으로서의 개념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가족아카이브는 가정 내 책꽂이나 서랍에, 심지어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SNS상에도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아카이브는 공공기록처럼 생산, 관리, 보존에 이르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절차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며, 수많은 기록 중 영구보존 목적을 위해 평가선별된 대상도 아니다. 즉 가족아카이브는 특정 기록 내지 장소적 의미를 넘어, 무형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Woodham, King, Gloyn, Crewed, Blair 2017, 206). 가족아카이브의 개념은 기존의 공공기록처럼 관리 및 보존 목적이라기 보다는, 가족에게 전달하는 의미와 역할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산되어 보유하면서 가족의 유대감 및 동질감 형성 등을 위해 공유되는 ‘활용’적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아카이브는 개별적인 가정 맥락에서 가족 구성원이 인지하고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며(Woodham, King, Gloyn, Crewed, Blair 2017, 216-217), 가족의 정체성, 동질감, 소속감, 유대 강화 등을 위해 활용되는 하나의 개념적 틀로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아카이브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아카이브는 그동안 공공기록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을 원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성 및 고유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반에 형성된 현대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의 체계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기록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기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조직 및 기능구조와 연계되어 기록을 분류하는 출처주의 원리를 비롯하여 3단계 기록관리체제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 프로세스 역시 그러하며, 라이프사이클 이론 및 기록의 평가 이론 역시 대량의 기록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된 것이다(Evans 1967, 46). 아울러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강조되는 기록의 4대 속성 및 증거의 개념 역시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행위의 내역을 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목적은 그동안 공공기록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기록관리의 목표와는 다른 시각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공기록으로 대표되는 조직기록의 관리와 가족아카이브의 토대가 되는 개인기록의 관리를 동일성상에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조직기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인들은 스스로의 법적 증거적 필요에 의해 또한 개인의 기억 보관을 위해 개인기록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증거 및 기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McKemmish 1996, 175).

기록은 개인 및 조직의 활동에 대한 증거 및 정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 역시 일정 부분 수용이 가능하나, 궁극적인 관리의 목적은 차별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록처럼 생산부터 관리, 이관, 보존에 이르는 체계화된 관리 프로세스의 적용이 용이치 않다, 이로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기록전문직을 각 가정마다 가족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량의 기록을 통제하기 위해 개발된 기록 평가를 위한 가치 기준 역시 적용하기 어려우며, 영구보존 내지 장기보존이란 개념 역시 전문적인 시설 및 인프라가 부재한 가족아카이브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지닌 기록을 획득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 역시 가족아카이브에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가족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가 아닌 '활용'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은 20세기 이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생산되는 기록을 생산부터 최종 보존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4대 속성을 지닌 채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가족아카이브는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감 및 동질감, 소속감 강화를 위한 활용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아카이브 형성의 기반이 되는 개인아카이브는 공공기록처럼 업무상의 투명성, 책임성 내지 업무적 필요를 위한 목적이 아닌, 각 개인의 활동과정 중에서 생산된 기록이 우연히 남겨진

것으로 개인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보관하는데서 출발하게 된다(Fisher 2009, 18-19). 또한 개인아카이브는 공공기록처럼 체계적으로 획득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 스스로의 활동을 기억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Harris 2001, 12), 각 개인의 성격 내지 개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된다(Hobbs 2001, 12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아카이브는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록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가족아카이브의 기능 및 가치

활용에 주안점을 둔 가족아카이브의 기능은 수많은 측면에서 도출이 가능하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은 저마다의 희로애락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가족아카이브의 기능 내지 활용 목적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가족마다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가족아카이브는 가족공동체의 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동의한다. 우선 가족아카이브 형성의 전제가 되는 가족사 연구의 기능으로 Etherton은 가족 구성원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 부부간의 갈등 완화, 자아에 대한 인식 강화, 가족 구성원의 공동의 기억 구축을 통한 유대감 강화 및 입양아의 자아 추구 및 정체성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Etherton 2006, 228-235).

아울러 Kambar은 1900년대 초반 페르시아의 우르미아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아시리아계 미국인 가족인 벤자민 가족의 생애사 기록 분석을 기반으로 가족아카이브가 가족의 정체성 및 동질감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벤자민 가족아카이브를 통해 남겨진 가족 이야기는 아시리아 이민자들의 역사적, 종교적, 언어적 유산과 연속성을 제공함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세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제시하였다(Kambar 2013, 11).

한편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기능을 분석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The Family Archive: Exploring Family Identities, Memories and Stories through Curated Personal Possessions”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와 맞물려 가족아카이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족아카이브의 기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가족아카이브를 통한 공동의 기억 구축을 통해 가족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제공하며, 가족의 정체성 및 동질감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가족아카이브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한다는 것이다(Woodham, King, Gloyn, Crewed, Blair 2017, 207).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듯이, 가족아카이브의 기능은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및 소속감, 정체성, 동질감 강화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활용 목적에 두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활용 목적은 가족공동체가 직면한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듯이 가족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서로 다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도 가족마다 제각각일 수 있다. 분명한 점은 가족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족 구성원들의 기록을 얼마나 전문적 내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 전문적인 방식으로 기록의 전 생애에 걸쳐 관리,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온 공공기록과 달리, 가족아카이브는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활용 및 이를 통한 가족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족아카이브는 종국적으로 한 국가 내지 사회의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가족은 한 사회 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가족 구성원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반영한 기록은 총체적 사회 내의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아카이브는 총체적 아카이브즈(Total Archives) 구축을 위한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된다. 한 국가 내지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기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록 역시 수집, 보존되어야 하며

(Millar 1999), 이러한 점에서 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형성하는 가족의 기록들은 공공기록이 전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회상을 형성해줄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생성된 개인기록들은 가족아카이브 구축의 기반이 된다(Cox 1996, 52). 이러한 가족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기록들은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자료로써 활용되어 왔으며(Williams 2008, 56), 아울러 연구자들에게 개인기록들은 체계적 기록관리체계를 지닌 공공영역 아카이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친밀감을 전달해준다(Hobbs 2001,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보존 영역에서는 체계적으로 생산되어 이관된 공공기록 위주로 관리, 보존해 왔으며, 가족아카이브를 형성하는 이러한 개인기록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다(Williams 2008, 57).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기록은 가족 자체는 물론 다른 가족들 및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McKemmish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적용하여 차원 4의 다원화 과정을 통해 개인기록이 범사회적으로 의미가 확산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우선 개인기록의 관리를 조직기록의 관리와 동일선상에서 파악한다. 즉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어떠한 기록이 조직의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 획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개인 역시 사회적으로 할당된 개인의 임무 내지 역할, 관련되는 활동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어떠한 개인기록이 이에 대한 증거로 획득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을 부모, 자녀, 연인, 동료 등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파악함으로써, 개인기록이 지니는 의미를 다원적으로 모색한다(McKemmish 1996, 175-176).

다원화 공간으로서의 차원 4는 기록의 의미 및 가치가 범사회적으로 전달, 활용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가로질러 공유된 경험 및 기억이 생성되게 된다. 전통적으로는 기록 생산 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인 라이프사이클의 비현용단계에서 제3자 내지 사회에 대한 기록의 의미가 공유

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구애없이 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기록의 의미가 공유될 수 있다(Reed 2005, 3~5). 바로 여기서 가족구성원의 개인기록이 지니는 의미는 본인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넘어 차원 4인 다원화 과정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니는 의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McKemmish 1996, 175).

또한 현대 사회생활의 복잡화 및 다원화 경향에 따라 가족의 지닌 생활 모습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여기서 가족아카이브는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지니는 의미를 넘어 사회 내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Taylor 1980, 228). 이와 더불어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기록은 일상적인 도시민들의 생활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기록이 모여 종국적으로 한 사회 내의 총체적인 기록 군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 한 국가 및 사회적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밝혀주는 가치로 확대될 수 있다(Rosenberg 2011, 91-92).

이러한 가족아카이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아카이브는 가족기록 보존을 위한 제도 및 공간 개념이 아닌,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손쉽게 기록을 정리, 활용하는 것이 가족공동체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족아카이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탈피함과 더불어 특정 유명 가문 위주의 기록 수집을 지양해야 하며, 일반 시민들 스스로 가족아카이브를 구축해 종국적으로 가족에 도움이 되는 기록의 의미 모색 및 활용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Woodham, King, Gloyn, Crewed, Blair 2017, 216-218). 아울러 가족의 정체성, 동질감, 소속감 강화 및 상처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 유형을 발굴해 소개해주어야 하며,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및 의료인 등 치유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Etherton 2006, 235-243).

21세기 사회의 복잡화 및 각종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록보존소는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및 활용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Tucker 2006, 154-155). 이를 위해 앞선 3장에서 살핀 바대로 현재 세계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구축 및 가족사 연구와 관련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가족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주며, 가족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록 유형 및 목록, 기록별 주요 내용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역사회의 기록관 역시 가족아카이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영역의 기록보존소는 정치, 경제, 제도와 관련된 엘리트 기록 위주로 관리 보존해 왔음을 염두에 둘 때(Taylor 1980, 229), 가족아카이브는 공공기록이 전달하지 못하는 기록의 여백을 메우는 방편이자,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의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록의 의미 내지 가치를 제고시켜주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최근의 사회환경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록을 활용한 가

족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는 3장에서 고찰한 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의 국립기록청 사례조사이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족아카이브는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20세기 후반 이후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에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중심축을 이루어 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록관리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기록을 정리해 가족사 연구 및 족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다. 족아카이브가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고유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가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4장에서는 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적 정립과 함께 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기존의 기록학 이론과 대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 족아카이브는 ‘제도’가 아닌 ‘문화’로, 또한 ‘관리’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들은 공공기록처럼 매일매일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고,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법령 및 표준, 지침 등을 통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록의 관리·보존에 앞서 기록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에 우선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가족 기록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기록학 비전공자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수업 과정에서 가족 기록의 정리 및 활용을 과제로 제출하게 해왔다. 기록관리를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서 보다는, 스스로의 일상생활 가운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가정 내의 책상, 서랍, 책꽂이, 책장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형 및 형태의 개인기록들을 한곳에 수집한 다음, 예비정리 절차에서는 이렇게 모은 기록들 가운데 가족구성원 각자의 생애 및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을 구분케 하였다. 예비정리 절차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의 개인기록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자신의 개인 생애사에 대한 조망을 통해 풍·시리즈·파일·아이템이란 4개의 계층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분류체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어 예비정리 절차를 거친 기록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편철·정리하게 한 다음, 개인 내지 가족사의 관점에서 중요 기록을 선별하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된 스스로의 개인기록들은 가정 내의 책꽂이와 같은 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간략한 기술 서식을 제공하여 보관된 기록들을 목록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략한 기록 정리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윈도우 무비메이커 등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족 기록을 활용한 2~3분 정도의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초보자도 10분 정도의 설명을 들은 후에는 모두 제작이 가능하였는데, 기록은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기록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발굴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유,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제작된 동영상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함께 시청한 후 기록이 가진 의미를 공유, 활용한 소감문을 A4지 1장 분량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가족구성원의 유대감 및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사례들이 모아졌다.

A 학생의 경우 자신의 탄생부터 백일 및 돌사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성장과정을 담은 사진, 종이문서, 행정박물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 제작해 일요일 온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상영을 하였는데,

장성한 자녀의 성장과정을 보신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잘 성장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남기셨으며, 이후 그동안 서머서머했던 부모님의 관계가 호전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제고되었다고 하였다. B 학생의 경우 중학생때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께서 외국에 홀로 생활하였는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생활모습을 수록한 사진 및 각종 기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아버지께 보내드리게 되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였고, 이를 계기로 수 년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 부정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지면상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례들이 학생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공통적인 소감은 그동안 기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왔지만, 가족 기록을 활용한 과제를 계기로 기록의 중요성 내지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및 소속감, 가족애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족아카이브는 공공기록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보존에 주안점을 두기에 앞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활용’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생활방식 내지 문화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하다면 일반 시민들이 기록의 가치 및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회 내의 기록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예비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시론적 연구로서의 한계 또한 지닌다. 향후 가족아카이브가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가족아카이브의 명확한 개념 정립 및 기존의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비춘 가족아카이브의 특성이 보다 세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많은 사례 조사를 통해 가족아카이브가 지닌 다양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 김재호. 2010. 「웹 환경에서의 개인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진용. 2013.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림. 2010.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연구 - 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성보. 2011. 일상 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국제한국학연구』, 5.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 오의경. 2017. 대학의 설립자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 이승미 외. 2012.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 이영남. 2020. 일상생활과 기록. 『기록학연구』, 63.
- 이윤석. 2014. 위기의 가족, 기댈 수 있다.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이은령. 2013. 「가족콘텐츠 스토리텔링 저작시스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멀티미디어 과 박사 학위 논문.
-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 201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1).
- 이정우 외. 1998.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진희. 2011. 일상 아카이브즈 구축방안. 『국제한국학연구』, 5.
- 장주영. 2016.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기록의 기록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발표논문집』.
- 최유리, 임진희. 2015.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나의 아카이브(My Archive)' 만들기. 『기록학연구』, 47.
- 최재석. 2009. 『한국의 가족과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 Cox, Richard J. 1984. Genealogy and Public History: New Genealogical Guid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Historians. *The Public Historian*, 6(2).
- Cox, Richard J. 1996. The Record in the Manuscript Collection. *Archives and Manuscripts*, 24(1).
- Duff, Wendy M. and Johnson, Catherine A. 2003. Where Is the List with All the Name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Genealogists. *American Archivist*, 66(1).

- Etherton, Judith. 2006. The Role of Archives in the Perception of Self.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7(2).
- Evans, Frank B. 1967.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Variations on a Theme. *American Archivist*, 30(1).
- Fisher, Rob. 2009. In Search of a Theory of Private Archives: The Foundational Writings of Jenkinson and Schellenberg Revisited. *Archivaria*, 67.
- Harris, Verne. 2001. On the Back of a Tiger: Deconstructive Possibilities in "Evidence of Me". *Archives and Manuscripts*, 29(1).
- Hobbs, Catherine.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 Reflections on the Value of Records of Individuals. *Archivaria*, 52.
- Kambar, Ruth. 2013. *A Family Archiv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Assyrian American Diaspora*,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Steinhardt School of Cultur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University.
- Lundin, Matthew David. 2006. *The Mental World of a Middling Burgher: The Family Archive of Cologne Lawyer Hermann Weinsberg(1518-1597)*. The Department of History for The Degree of Ph. D. Havard University.
- McKemmish, Sue. 1996. Evidence of Me.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5(3).
- Millar, Laura. 1999. The Spirit of Total Archives: Seeking a Sustainable Archival System. *Archivaria*, 47.
- Reed, Babara. 2005. Beyond Perceived Boundaries: Imagining the Potential of Pluralised Recordkeeping. *Archives & Manuscripts*, 33(1).
- Rokahr, Jack. 2003. The Rokahr Family Archive. *The Opera Quarterly*, 19(4).
- Rosenberg, Victor. 2011. The Power of a Family Archive. *Archival Science*, 11(1-2).
- Taylor, Hugh A. 1980. Family History: Some New Direc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Archivist. *Archivaria*, 11.
- Tucker, Susan. 2006. Doors Opening Wider: Library and Archival Services to Family History. *Archivaria*, 62.
- Williams, Caroline. 2008. Personal Pap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What are Archives? Cultur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A Reader*, Craven, Louise ed. Ashgate: Aldershot.
- Woodham, Anna, King Laura, Gloyn, Liz, Crewed, Vicky, Blair, Fiona. 2017. We Are What We Keep: The "Family Archive": Identity and Public/Private Heritage. *HeERITAGE & SOCIETY* 10(3).
- Yakel, Elizabeth and Torres, Deborah A. 2007. Genealogists as a "Community of Records". *American Archivist*, 70(1).

〈온라인 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온라인판)

글로벌 세계대백과(온라인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온라인판)

〈미국 국립기록청〉

<https://www.archives.gov/preservation/family-archives>

<https://www.archives.gov/research/genealogy>

<https://www.archives.gov/research/genealogy/census>

<https://www.archives.gov/research/military>

〈호주 국립기록청〉

<https://www.archives.gov/research/immigration>

<https://www.archives.gov/research/immigration/naturalization>

<https://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storing-and-preserving-information/preserving-information>

<https://www.naa.gov.au/explore-collection/search-people/researching-your-family>

<https://www.naa.gov.au/help-your-research/getting-started>

〈영국 국립기록청〉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archives-sector/advice-and-guidance/managing-your-collection/>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help-with-your-research/research-guides/?research-category=family-history>

〈캐나다 국립기록청〉

<http://www.bac-lac.gc.ca/eng/discover/genealogy/Pages/introduction.aspx>

<http://www.bac-lac.gc.ca/eng/search/Pages/ancestors-search.aspx>